

'자비복지타운'에 보시금 기탁 이어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 장애인 시설 소책새마을(원장 성득)이 옮겨갈 '자비복지타운' 불사에 각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제 귀신사 주지 무어 스님은 2월 17일 삼제기도 보시금 중 100만원을 기탁했다. 서울 은평구청 환경미화원 이명자(60)씨도 2월 12일 지난해 말에 받은 퇴직금 중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씨는 정기후원금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자신의 교통사고 보상금 500만원을 보시한 적도 있을 만큼 소책새마을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불자다. (02)928-0750
 김강진 기자

조계종에 지원 - 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시분(2월 17일~2월 24일)

연경스님의 510만원 안성정통사 45만5000원 동전교환 38만790원 동화사 4126만원 보라매법당 100만원 반야사서 소속 23만원 대전북고교 15만6천원 탄허불교문화재단자랑사 40만원 이상신 2만원 극락사 이종길 10만원 송미현 20만원 무진법정사순회 76만2700원 도선사 2000만원 (故)권오남 300만원 조희대 5만원 이숙배 10만원 박미자 10만원 서울육천암산도일동 156만6000원 불선사 1101만원 다음카 페백일스님따라잡기회원일동 60만원 청량사 150만원 망경암 20만원 불교텔레비전 1157만9500원 총 94,769,990원
 조계종 재난구호성금 총액(2004년 12월 28일~2005년 2월 24일): 1,742,052,052원(ARS 1,100천 5,500,000원 환산)

2005년 나눔 캠페인 '동참하세요'

본사는 지난해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포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죄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포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보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계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사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중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중단 및 단체들과 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열리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통합을 위해 마련된 서울노인복지센터 '제4회 탑골인 겨울자원봉사학교' 참가자들이 2월 23일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에 들러 앞마당 흙을 고르고 있는 모습.

세대차이? 봉사하며 극복하세요

'탑골인' 노인·청소년 45명 자제정사에서 봉사

"할아버지, 추운 날에 장갑 끼고 일 하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 경기도 화성 자제정사(이사장 묘회) 앞마당의 흙을 고르느라 열심히 삽을 놀리던 최형하(80) 할아버지에게 지혜(수도요고 2기) 목장갑을 꺼준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가족관계로 보이는 이들은 사실 2월 22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환)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끈끈한 정으로 뭉쳐 의지할 곳 없는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자제정사를 찾은 사람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과 청소년 세대의 통합을 위해 마련한 '제4회 탑골인(Top Goal) 겨울자원봉사학교' 참가자들이다.

22일 간단한 봉사 교육을 받은 노인과 청소년 45명에게 23일 하루, 적절하게 지내는 자제정사 할머니들과 함께보내라는 '임무'가 떨어졌다. 참가자들은 각각 조를 짜서 앞마당의 흙을 퍼다 공터에 내다버리는 움직임을 하는 것은 물론 할머니들과 함께 노래자랑을 하고 말벗 상대가 되어 드리는 등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실행해냈다. 행사 중간중간 청소년들은 할머니들에게 안마를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봉사 노인들은 할머니 고하여 어던지, 자식은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손을 마주 잡기도 했다.

자제정사 할머니들로부터 "날마다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니가 웬걸, 너무 기쁘고 씩씩하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봉사'라는 공동과제를 부여받으니 어르신들과 말도 잘 통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과 함께 하니 어머니는 질문도 그냥 얼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유종근(72) 할아버지와 정호진(관악고 1) 양의 만족스런 표정에서 탑골인 활동이 봉사는 물론 세대를 넘어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증명됐다. 글·사진/최성=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시흥장애인복지관, 안산1대학과 산학협력

경기도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2월 21일 인근 안산1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거행했다(사진). 이상호 관장은 "산학협력이 체결돼 복지관에서는 인력 수급 향상 효과를, 학교측에서는 복지 전문인 양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2월 22일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할머니 삼총사'와 밀각심인당 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복지관 금식 준비대 앞에 섰다. 사진 오른쪽 3명이 '할머니 삼총사' (왼쪽부터 김봉래·김남희·김석봉 할머니).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할머니 삼총사'

"'삼총사' 없는 복지관 상상못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생각을 나로와요. 여기서 일하는 게 내 생활이니까요."

서울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우)에는 유명한 '할머니 삼총사'가 있다. 그 중 맏언니는 김석봉(75) 할머니. 밀각·탐조 심인당에서 자원봉사자가 10여명 풀려온 2월 22일에도 할머니의 식당바다 청소는 계속됐다.

또 한 쪽에서는 둘째 김봉래(72) 할머니가 길게 줄을 선 노인들에게 국을 퍼 주고 있고 주방에서는 맏 맏 김남희(68) 할머니가 부엌바닥을 물로 훑어내느라 분주하다.

이러바 '삼총사'라 불리는 이들 할머니들은 성북노인복지관이 건립된 98년, 회원으로 인연을 맺어 자원봉사를 해온 열혈 봉사자들이다. 복지관 회원이면서 회원 서비스 이용에 그치지 않고 다른 노

인들을 위해 애쓰면서 자원봉사자들은 이끌고 있는 것이다. 복지관에서 매일 아침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는 도시락 준비를 시작으로 이들 할머니들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서 이뤄

지는 급식 봉사란 없다. 성북노인복지관 직원 유재철(49)씨는 "우리 어르신들이 복지관 식당 살림을 다 꾸러간다"며 김남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식당 이용 노인들도 "늘 할머니들을

보게 되어서 사람들이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할 정도다.

"이러니 별 수 있나, 내일 또 나와야지." '삼총사' 할머니들은 그저 밝게 웃으며 한마디 툭 던지고는 다시 쓸고 닦는 손길에 힘을 준다. 김강진 기자

자원봉사자 이끌며 8년째 급식 도맡아

■후원해 주세요 - 성북구 '노인의 집'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성북구 지역 내 무의탁 저소득 노인 생활공간인 '노인의 집'을 2001년부터 성북구청으로 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성북노인복지관은 현재 안암동, 장위동, 정릉동 3곳에서 독거노인 19명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김봉래 할머니는 "가장 필요한 것은 약품이지만 무의탁 노인들에게는 생필품, 식료품 어느 것 하나 풍족한 것이 없어 무엇이든 불자들이 마음을 내 기탁해줬으면 한다"며 봉사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후원문의 (02)929-7950-2

매 순간 기도하라

생활실천 기도도량 / 효행불교 · 선행불교

부처님을 따르고, 마음의 고통을 덜고,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광명사로 오십시오!

원하는 바 쪽 이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주지 대덕

기도법사 보현

광명사기도법회 안내

광명사 기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놓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 ▶ 회주 활안 큰스님 법문 / 매월 1.3주 일요일 오전 11시
- ▶ 자비참법기도 (5년 정진 중) 매주 화요일 광명사 동참
- ▶ 나한기도 (2년 정진 중) / 매주 금요일 광명사 동참

광 명 사

광명사 500나한 봉안 불사

◇ 지난 10개월간 130나한 봉안 (목아 박찬수님 작품) ◇

천작(天作)일까? 초인간상의 세계적인 위인상이요, 보살상이라. 화정 광명사에 나투신 5백나한 - 도심속의 나한도량으로 거듭나 근기와 정성에 따라 현세의 소원을 이취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발원에 따라 엄청난 신통력을 보여 주십니다. 광명사 법

당을 다녀간 불자들이 즐지어 신비한 꿈을 꾸고 기도 성취하며 많은 분들의 소구소망 이루는 것은 모두가 광명사 나한님의 원력이십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방문하셔서 세계제일의 나한님을 친견하시고 가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현 기도법사님이 쓰신 '명상의 세계' 책자를 무료로 드립니다.

광 명 사 회주 활안 · 주지 대덕 합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9-2 백양빌딩 7층 (화정역 근접) 전화 031-978-9782 / 011-493-1121